



Urban Regeneration News Letter

공주시 도시재생소식지

제 19호
2021. 6.

토크 투유 Talk 투流

토크는 이야기하다. 투유는 시민(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유는 흐름유 문화의 향기가 흐름을 의미합니다.

- 01 중학동 도시재생뉴딜 신바람 정책특독 토론회 진행
- 02 공주시, 공주대학교와 도시재생분야 상생협약체결
- 03 도시재생 뉴딜교육 우수사례 선정
- 04 옥룡동 '은개마을 웃음꽃 찾기 프로젝트' 성료
- 05 아카데미극장 재탄생을 기대하며
- 06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
- 07 공주 도시재생 이모저모
- 08 도시재생 탐구생활
- 09 현장지원센터 이야기
- 10 함께하는 이야기



옥룡동 은개마을 풍경

2021.6.
그림 : 정찬호

중학동 도시재생뉴딜 신바람 정책특토 토론회 진행

공주시는 지난 5월 24일(월) 공주문화원에서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중심시가지형) 사업에 대한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바람 정책특토 토론회'란 명칭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흥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진행으로 공주문화원, 공주예총, 중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분과위원장 등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 그리고 주민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중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서도 '제민천 프롬나드 조성 사업'과 '공주 야행 골목길 활성화 사업'이었으며 기획·설계 용역을 맡은 KBS아트비전, 서울전시, 어반마크에서 경과를 보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제민천 프롬나드 조성 사업은 원도심의 자랑거리인 제민천을 중심으로 보행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시민 활력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자연하천의 특성을 고려해 쾌적하고 과하지 않은 이용객 중심 공간으로 조성되 공주시 고유의 정체성을 디자인에 반영하고자 했다.

다음 공주 야행 골목길 활성화 사업은 과거 지역 상권 중심지였던 중동147 골목을 대상으로 야간에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골목

길, 간판 정비, 야간 조명 및 파사드, 상징물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제안 설명을 통해 앞으로 변화될 제민천과 중동147 일원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중학동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제민천과 대표 행사인 공주 야행이 연관된 사업인 만큼 세부적인 조성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이상적 방향이 '주민주도형'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주요 의견으로는 공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디자인 적용, 청년 유입을 위한 지원 정책 필요, 지역 상가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 자연친화적 조형물 설치 등과 함께 단기성과가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보고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자리에 참석해주고 여러 의견을 제시해준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린다.



토론회 모습



사업 예시도(공주 야행 골목길 활성화)

공주시, 공주대학교와 도시재생분야 상생협약체결



공주시-공주대 상생협약 체결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4월 16일(금) 공주대학교와 도시재생분야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희봉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공주대학교 정남수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윤혜려 외식상품학과 교수, 김무한 조경학과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 연계 수업을 실시하고 지역 아카이빙, 음식상품개발 및 기술 이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시는 지난해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 수업을 처음 실시하며 마을아카이빙, 상품개발, 웹툰제작 등 성과물을 도출해내며 호평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지역 대학과 청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연계수업을 실시해 지역 활력 증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을, 대학생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증진시켜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활발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며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길 기대하고 있다.

지역연계수업은 2021년도 1학기 대학교 정규수업과 함께 진행되며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외식상품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2~3명씩 조를 이뤄 공주 원도심을 조사·분석한 뒤 지역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은 외부인이자 20대 청년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지역을 분석한 뒤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었다.

연계수업 결과물은 1학기 수업 종료 후 보완과정을 거쳐 9월 초 성과공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교육 우수사례 선정

국토부와 LH 도시재생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주관·제작한 도시 재생 뉴딜교육 사례집에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공주시가 우수모델로 선정·소개됐다.

도시재생 뉴딜교육 우수사례집은 전국 각 지역의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중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해 뉴딜교육 품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인데 공주시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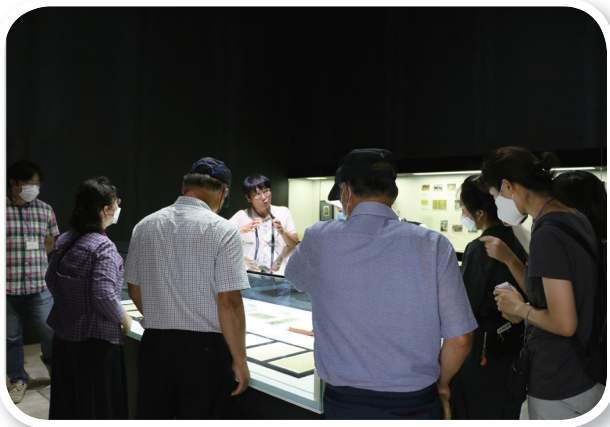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공주시민대학 마을가꾸기분과 14기 '공간스튜디오' 과정이다. 해당 과정은 중학동 도시재생뉴딜(중심시가지형) 사업을 통해 조성 예정인 '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 건축과 관련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김병윤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였고 참가자들은 서로 간 의견을 교환하고 타 지역 사례도 견학해보는 과정을 통해 직접 자신들이 원하는 건축설계안을 기획·도출해 내었다.

그동안의 도시재생대학 교육이 이론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 반면, 공간스튜디오 과정은 실제 교육의 결과가 도시재생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호평을 받았으며 시는 결과물을 적극 활용해 건축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했던 한동일 풀꽃협동조합 이사장은 '처음 교육에 참여할때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플랫폼 건축을 세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도 있었지만 교육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적극적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는 걸 몸소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공주시민대학 마을가꾸기분과'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제17기 과정까지 교육을 마쳤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례 답사 모습



교육 모습

옥룡동 '은개마을 웃음꽃 찾기 프로젝트' 성료

주시는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은개마을 웃음꽃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희망의콘서트 행사



희망타일 만들기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뉴딜(주거지원형) 사업이 진행 중인 옥룡동 은개마을에서 지난 5월 3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실시됐다.

먼저 5월 3일(월)에는 은개마을 희망의콘서트가 개최돼 사전에 접수 받은 지역민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가수가 직접 불러줘 재미와 감동을 더했다. 이어 7일(금)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카네이션 나눔 행사를 진행, 학생들의 정성 어린 손글씨가 적힌 카네이션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옥룡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의 메시지와 염원을 담은 희망타일 만들기 접수가 진행됐다. 마을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대한 소감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남겼으며, 타일들은 가공처리 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벽면에 부착되었다. 주민들의 메시지를 담은 희망타일은 2022년 상반기 완공될 옥룡동 어울림센터 벽면에 이동부착·전시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은 사연 접수, 카네이션 나눔, 타일 제작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호평하였으며 무엇보다 행사의 재미도 물론이지만 작고 오래된 마을에서 이런 이벤트가 개최된 점 자체에 감동과 보람을 느꼈다.



아카데미극장 재탄생을 기대하며

공주시 봉산길 5(반죽동)에 위치한 구)아카데미극장(이하 아카데미극장)은 1932년 건설된 지역 최초의 극장이다. 전신으로 전해지는 금강관이 1900년도에 설립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니 사실이라면 서울의 원각사보다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인 셈이다. 이렇듯 중요한 공간이나 언제 극장이 폐관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다. 하지만 ‘아카데미극장’이라고 하면 공주 원주민들은 대부분 이곳을 떠올릴 정도로 역사와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이다.

이런 아카데미극장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재탄생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중학동 도시재생뉴딜(중심시가지형) 사업 중 하나로 아카데미극장을 마을 어울림플랫폼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폐건물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는 실시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1차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앞으로도 진행사항은 주민협의체 및 지역주민들과 공유해가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한편, 20세기 초 조성된 극장 건물은 안전점검결과 안타깝게도 너무 오래된 나머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철거 후 재건축이 결정되었다.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공주시민들의 추억과 역사가 담긴 건물이 사라지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신 많은 이들의 의견을 따라 철거 전 아카데미극장의 가치, 흔적 등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아카데미극장을 기대하며 이와 관련된 소중한 자료, 사진,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있으니 공주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

아카데미극장 관련 자료수집 알림

1932년 건설된 지역 최초의 극장
아카데미극장과 관련된 소중한 자료,
사진, 이야기들을 수집합니다.

연락 : 공주시 도시정책과 041) 840-8943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041) 840-2282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4월 5일(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을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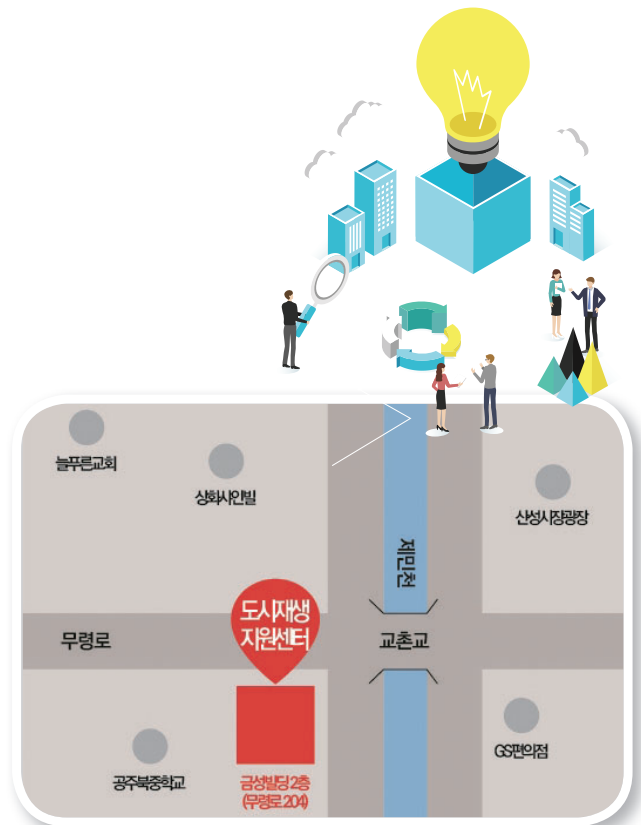
지난 2015년 구)공주군청 자리에 개소해 지역민과 함께 소통해 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선도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들과 함께하며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왔다. 이번에 자리를 옮긴 곳은 무령로 204, 금성빌딩 2층(반죽동)으로 원도심 활성화구역으로 한발 더 다가서서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전경(건물 2층)

신규 조성된 사무실은 연면적 362㎡ 규모로, 사무실과 교육실, 소규모 교육실로 구성됐으며, 공동 이용공간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잠시나마 편히 쉬워갈 수 있게끔 했다. 지난해 진행된 지역 연계사업 결과물과 각종 도시재생 소식지들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주시민대학, 역량강화교육, 주민공모사업 등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희봉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사무실 이전을 통해 원도심과 보다 가까이하게 되었다”며 “새로운 공간에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약도

한편,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은 공주시 보건소의 치매안심행복누리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주 도시재생 이모저모

2021년 3월 18일 예산군 주교1리 현장지원센터 견학단 공주시 방문

예산군 주교1리 현장지원센터 직원 및 주민분들이 공주시를 방문하였다. 10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공주시 대추골 안심골목길, 근대화탐방길 등 골목길 조성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돌아보며 골목재생에 대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함께 논의했다.

2021년 3월 26일 중학동 향토음식개발 요리경연대회 실시

중학동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향토음식개발 요리경연대회가 실시되었다. 전국 UCC 공모를 통해 진행된 이번 대회는 공주의 특산물인 미나리와 인절미를 소재로 다양한 창작요리들을 접수받았고 총 44개팀이 참가하였다. 최우수상에는 김자매팀의 인절미나리 잡채가 선정되었다. 경연 결과는 향후 공주상권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실상품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1년 4월 8일 인천시 안골마을 현장지원센터 견학단 공주시 방문

인천시 안골마을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및 직원들이 공주시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주거지지원형 사업과 관련해 사업 애로사항 및 접수리 지원사업 노하우에 대해 공주시의 경험을 경청하였고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다.

2021년 4월 19일 옥룡동 공산성어울림센터 착공식

옥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인 공산성어울림센터 착공식이 진행되었다. 시 관계자 및 지역주민이 함께 한 이날 행사는 향후 조성될 어울림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설명이 있었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였다.

2021년 4월 23일 옥룡동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꽃 심기 행사 개최

옥룡동 활성화구역 내 공용주차장 및 유휴지 환경개선과 마을 이미지 향상을 위한 꽃 심기 행사가 개최되었다. 은개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새마을부녀회, 도시정책과,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참여하여 구슬땀을 흘렸다.



2021년 5월 25일 광주시 송정동 현장지원센터 견학단 공주시 방문

광주시 송정동 현장지원센터 지역주민들이 공주시를 방문하였다. 15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공주시 원도심의 풀꽃문학관, 공주하숙마을, 하숙촌골목길 등을 돌아보며 도시재생 선진사례를 몸소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년 5월 25일 대추골 도시농업축제 개최

도시농업을 테마로 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 중인 대추골에서 마을축제가 개최됐다.

이날 오전 11시~오후3시까지 진행된 행사는 도시농부일기 영상송출, 토크쇼 및 공연, 판매부스(드라이브스루)로 구성되었으며 전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대추골 농업대학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전달도 함께 하며 그동안 참여해준 지역주민들께 감사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시재생 탐구생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정확한 범위가 존재하나요?



현재 우리 공주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중학동(2019년~)과 옥룡동(2017년~) 2곳이 있는데 동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이라 하는데 동 안에서도 가장 사업 필요성이 높으면서 향후 파급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정해 사업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범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urc>)에 게시된 사업구역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고도육성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상생방안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합니다. 중학동의 경우 두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대상지는 중복되지만 사업 내용 및 목적

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살기 좋은 원도심 만들기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기에 부처협업사업으로 대동사지 실체회복사업, 감영터 일대 고도골격 복원사업,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제민천변 역사문화 역량강화사업 등을 중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하여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도시재생 활동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활동 홍보,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운영 중입니다. 유튜브에서 ‘공주, 특투유’를 검색하시면 주민공모사업, 시민대학, 주민활동영상, 도시재생 홍보영상 등 다양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 소개될 영상들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840-2282~4



현장지원센터 이야기

옥룡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의 하루



옥룡동 현장지원센터의 하루는 마을주민분들의 방문과 함께 시작된다. 남자다우면 서도 정이 가득하신 5통 통장님이 방문해 따뜻한 커피 한잔 나누며 마을 도시재생사업 이야기를 제법 진지하게 하고 가신다. 뒤이어 손재주 좋고 말씀을 잘하시는 5통 부녀회장님 이 오셔서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주민공모사업과 마을 꽃심기에 대한 여러 얘기를 하고 가 신다. 두 분이 가시고 두 명의 직원들은 본격적인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된다.

카페 같은 분위기의 현장지원센터와 아늑한 동네 분위기를 좋아하는 두 직원들은 이 제 마을주민들과도 제법 친해져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일을 즐기는 중이다.



둘은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교대로 나가며 모니터링을 한다.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애로 사항도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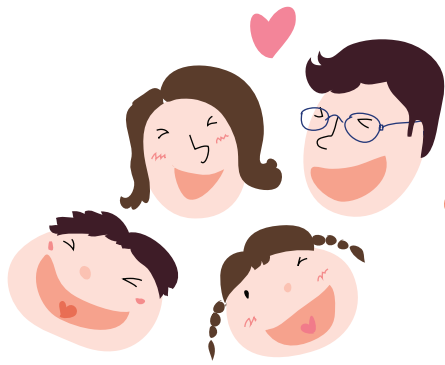


한 직원은 오전에 이어 주민공모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계관련업무를 주로 지원해주고 있다. 다른 직원은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마주치는 주민분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곳 옥룡동은 집수리 지원공사, 어울림센터 조성공사, 테마가로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동시 진행되는 중이다.



퇴근시간 무렵, 업무를 마무리하며 두 직원은 하루 일과가 끝났다는 기쁨보단 주민 들에게 좀 더 신경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낀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다짐 과 함께 퇴근하는 발걸음은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이 넘쳐난다.

2021년 5월의 어느 날, 옥룡동 현장지원센터에서...



함께 하는 이야기

2 시절의 조치원 - 철뚝너머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sejong0623@daum.net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조치원은 역 앞 동네와 역 뒷동네로 나뉘지고 역 앞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도시가 형성되어 나갔지만 역 뒤쪽은 교통이 불편하고 낙후되어 철뚝너머 동네라고 했다.

철뚝너머 동네를 가려면 역에서 남쪽으로 푼대거리(현 과선교 위치)에 있는 철도건널목이나 그 중간에 있는 남동굴다리로 통행을 했는데 이 굴다리는 경부선 철로 공사 때 침산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을 남리 쪽으로 흐르도록 배수구(排水口)를 설치한 곳으로, 비가 오면 다니지를 못했고 항상 바닥이 질퍽질퍽하였으며 높이도 낮고 폭이 좁아 다니기도 어려웠다.

또한 충북선이 조치원역에서 분기되면서 여러 갈래로 철도가 설치되어 철뚝너머 동네를 가기가 더욱 불편해졌고 남동굴다리나 철도 건널목은 멀리 우회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조치원역 부근에서 철도를 횡단하는데 열차 밑으로 엎드려서 기어가며 통과했다

이렇게 철뚝너머 동네를 다니다가 70~80년대 육교가 설치된 후에는 열차 밑으로 다니지 않았다. 그 후 교통수단이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서 동서쪽으로 철도를 횡단하는 교통량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종시에서는 남동굴다리에 인접하여 4차선 동서연결 지하차도 설치계획(향군회관→효성병원)을 수립하고 2017년에 착공하여 금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이렇게 동서 연결도로가 신설되면 철뚝너머 동네 뿐만 아니라 조치원 서부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동굴다리 위치



과거 남동굴다리 모습



공사 현장 모습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SNS 채널 안내

유튜브

지난 도시재생사업의 생생한 활동영상을 다시 보고 싶다면?

유튜브 '공주, 톡톡유'를 검색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가장 빨리 도시재생사업 소식을 알고 싶다면? 카카오톡 친구 '공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검색하세요!


Urban Regeneration News Letter
공주시 도시재생소식지


제 19호
2021. 06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공주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획/편집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일 2021.06.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2층
전화 041_840_2282~4
홈페이지 www.gongju.go.kr/urcdo
 YouTube 공주, 특투유